

# 짭잘하게, 때론 동전을 훑듯… 와인 ‘미네랄’이 뭐길래



“와인이 이렇게 짭잘하니 음식에는 간을 안해도 먹을 수 있겠어.”

굵은 천일염같은 짭잘함이나 조금만 더 익으면 좋겠다 싶을 상태의 천혜향 혹은 자동의 씹쌀한 신맛이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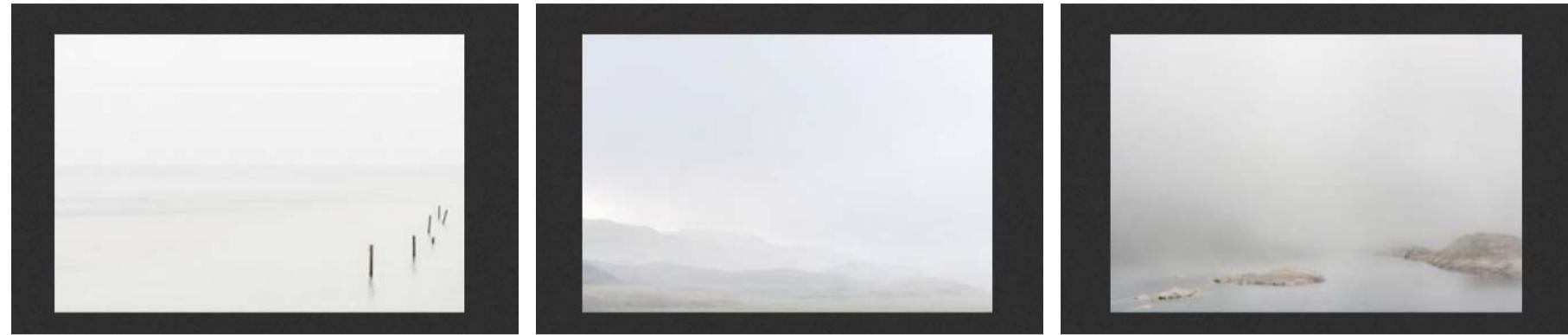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젖은 돌에 허를 대면 이런 맛이 날까싶은, 또는 강가 자갈이 떠오르는 미묘한 향이다.

이번엔 연기다. 부싯돌의 향이 잘 떠 오르지 않는다면 막연 성냥에서 나는 연기에 코를 집중해본다.

돌에도 혀를 대봤으니 연필심인 흑연, 십원짜리 동전은 아예 훑어보자. 혀에서마저 서늘하게 느껴지는 금속성의 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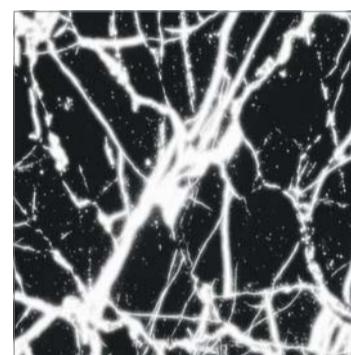
하나하나씩 보면 전혀 다른 성질인데 와인에서 경험한 것이라면 한 단어로 ‘통’ 칠 수 있다. 미네랄(Mineral) 느낌, 혹은 미네랄리티(Minerality).

그만큼 모호한 단어인데 또 막상 와인을 마셔보면 이게 미네랄리티구나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 엉덩이부터 들이밀고 자리잡는 것이 문제다. 국제와인챌린지



와인의 미네랄리티를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사진들. 왼쪽부터 바다, 땅, 연기의 미네랄리티.

/부르고뉴 와인협회(BIVB)



지난 2017년 열린 순수한 샤블리 와인을 예술로 표현하는 공모전에서 우승한 작품, 샤블리 와인의 미네랄리티를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IWC)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4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테이스팅 노트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를 설문조사했더니 1위가 ‘미네랄리티’였다. 의미 전달을 정확히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 와인을 말할 때 미네랄리티란 표현을 쓴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와인 평론가들이나 언론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품질이 좋다고 평가받는 와인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면서 유행처럼 번졌다. 미네랄 풍미나 향은 와인의 가격을 높이는 요소가 됐다.

포도를 진득하게 푹 익히기 보다는 산도를 적절히 살리고, 오크 사용을 절제하는 분위기도 미네랄리티를 부각시켰다. 과실과 오크향이 절제된 와인 일수록 미네랄 풍미가 잘 느껴지니 말했다.

이다.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어떤 특정 향이나 맛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각 경험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존재를 받아들였다면 어디서 비롯됐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또 수수께끼다. 알다시피 돌은 아무 맛도 없다. 짭잘하다면 염분이 있어야 하는데 와인에서는 나트륨 성분이 없고 포도나무는 염분을 빨아들이지 않는다.

IWC의 공동 의장인 제이미 구드 박사는 “우리가 와인에서 가죽향이 난다고 하거나 체리향이 난다고 할 때 와인에 실제로 가죽이나 체리가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며 “그렇다면 미네랄리티도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맛을 표현하는 일종의 그림 지도와 같다”고 전했다.

다면 공통적이라면 풍성한 미네랄리는 독특한 테루아의 와인에서 찾아보기 쉽다는 점이다.

부르고뉴 와인협회(BIVB)는 “흔히 암석이라 불리는 지질학적 광물은 생수 병에 표기된 것과 같은 이온 형태의 영양 미네랄과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물론 와인에도 미네랄 화합물이 들어있지만 그 농도가 너무 낮아 인간의 미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으며, 설령 맛이 있다 하더라도 미각으로 느낄 수 없다. 코나 입으로 느껴지는 미네랄 향은 다른 곳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샤르도네는 어디에서나 재배되지만 샤블리에서처럼 미네랄 풍미가 발달하지는 않는다”며 “독특한 미네랄리는 토양과 샤르도네 포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smahn1@metroseoul.co.kr



격한다. 3화에는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 물주 되는 법’의 하정우, 김준한, 정수정, 심은경이 치킨집을 찾는다.

자매치킨은 다가오는 14일

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김보민 기자 kbm@

## 문화 단신

### 메가박스 상암점 리뉴얼… 특별관 확대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개관 기존 상영관, 프리미엄 좌석으로

메가박스가 서울 서북권 핵심 거점이자 미디어콘텐트 산업의 중심지인 상암에 올해 첫 지점 리뉴얼을 진행한다.

메가박스는 상암월드컵경기장점에 영화 장면 속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을 오는 12일 개관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7개 상영관을 프리미엄 좌석으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르 리클라이너’ 특별관으로 순차 업그레이드한다.

‘돌비 비전+애트모스’는 돌비가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와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이다. 돌비 비전 레이저 프로젝터는 일반 프로젝터 대비 두 배 이상 밝기와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통해 풍부하고 깊은 색감을 제공하며, 돌비 애트모스는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이번 상암월드컵경기장점 리뉴얼은 메가박스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해 온 특별관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지난해 구의 이스트폴점에 아시아 최초로 도입



된 이후 상암월드컵경기장점까지 총 5개로 확대됐다. ‘르 리클라이너’ 관은 플래그십 지점에서 시작해 각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메가박스 특별관은 집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극장 경험을 제공하며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메가박스의 기술특별관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아바타: 불과 재’의 경우 전작 대비 돌비 특별관 관객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메가박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특별관 확대를 점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메가박스 상암점은 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먼저, 상암점을 선호지점으로 등록하면 ‘르 리클라이너’ 1만원 관람 쿠폰을, ‘돌비 비전+애트모스’ 첫 관객에게 전용 1만5000원 관람 쿠폰을 지급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

### 쿠팡플레이 ‘자매치킨’ 2월 라인업 공개

스타손님 초대해 ‘케미 토크쇼’ 펼쳐 첫 손님은 이성경·채종협·김원훈

쿠팡플레이의 예능프로그램인 ‘자매치킨’이 2월 한 달 동안 출연을 확정지은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을 12일 공개했다.

자매치킨은 이수지, 정이랑, 김민 세 자매가 운영하는 동호인 성지 치킨집에 찾아온 스타 손님들과 펼치는 ‘치키타카’ 케미 토크쇼다. 지난해 뜨거운 화제

를 불러일으킨 ‘자매다방’의 세계관을 확장한 후속작으로, 다방을 꾸려가는 큰 언니들의 쌍둥이 동생과 막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매주 스타 손님들과 케미를 선보이는 설정이다.

오는 14일 오후 4시 공개되는 첫화에는 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에’의 이성경과 채종협, 그리고 개그맨 김원훈이 자매치킨을 방문한다. 2화에는 로맨스 릴리 드라마 ‘세이렌’의 박민영과 위하준, 배우 권혁수와 개그맨 김규원이 출

### KT지니뮤직, 10대 전용 음악 이용권 출시

만 14~18세 전용 멤버십 ‘지니 틴틴’ 월 3960원…무제한 음악 스트리밍

KT지니뮤직은 음악 플랫폼 업계 최초로 10대 음악 이용권 ‘지니 틴틴’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니 틴틴은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월 3960원(VAT 포함)으로 무제한 음악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지니 틴틴 이용자가 만 19세가 되는

생일 이후의 이용 요금은 정상가인 8140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지니 틴틴은 5년간 이용할 경우 일반 음악 이용권 보다 약 2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KT지니뮤직의 홍세희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새롭게 출시한 ‘지니 틴틴’ 이용권은 10대들의 현실적인 소비 여건을 반영해 음악 이용권 가격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상품”이라며 “당사는 10대들이 음악 플랫폼 지니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는

음악 감상 무제한 지니 틴틴이 쓴다!

KT지니뮤직은 음악 플랫폼 업계 최초로 10대 음악 이용권 ‘지니 틴틴’을 출시했다. /KT지니뮤직

며 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김보민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주지사 연례 만찬에 민주당 소속 2명 초청 안 해”

▲1월 중국 신차 234만대 판매…“3.2% ↓·보조 축소 영향”

/사진 뉴시스

▲인권단체 “이란 시위 사망자 최소 7000명”… 공식 발표의 약 2배

▲日, 나미비아서 중희토류 상당량 확인…권익 확보 추진

▲주한 리 대사 “한러 관계 개선, 韓정부에 달려… 독자제재 해제해야”

▲중앙아 국가들 잇단 ‘스마트 시티’ 건설…“경제적 탈러시아화”